



대행님

독자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nia.com/mem/ha nmaum

# 자기의 근본 '주인공' 을 믿고 거기에 놓는것이 그대로 공부

15면에서 계속

어디를 막론해 놓고 비참할 일들이 뭐 이 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물어오 안되고 웃어도 안되고 그런 문제죠. 모두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예전에 과거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애들끼리 놀다가 불집게로 어떻게 잘못해서 죽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한 동네에서 또 살게 됐는데 또 불집게로 쳐서 죽었다 말입니다. 그런 걸 이 세간 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 인과응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다면 이 공부하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그 자체는 내가 고운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곱게 나오고 내가 악을 쓰고 욕을 하면 상대방에서도 욕을 하고 나오는 뜻과 같죠. 그런 업보가 생기는 것이 뭐냐. 업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일들이 벌어지니까 업보라고 이름을 지어서 방편을 쓰는 거지 그것이 업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본래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농사지를 때 뽕이나 짐승이나 어떤 생명들이 새끼들을 낳고 있으면 그냥 삼으로 척척해서 죽여버리고 판 생명들도 그냥 잡아서 태워서 먹고 이렇게 모든 게 하나부터 열 가지 다 귀하게 여기질 않고 우습게 여겼던 때가 많았죠. 물론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하면 자기 지식한테로 오거나 자기한테로 오죠.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이 가든지 이태가 가든지 또는 그 후 생이러든지 그렇게 돼서 인과가 벌어져요. 그러니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둘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 되는 거죠.

움이 생겼던 간에 그 괴로움을, 눈앞에 닥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애쓰게 아니라 먼저 자기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어떤 새로운 삶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 높은 법력이 있으니까 중생제도를 위해서 그런 과정은 제가 느끼기에 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지닌

- 내가 고운말 하면 상대방 곱게 나오고
- 내가 악 쓰면 상대도 욕하는 것이 인과응보죠

사람들에게 그냥 주인공 자리에 관한다고만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어떤 병을 내내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동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참회를 먼저 해야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개안을 먼저 해야 그 병도 나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같은 일반 신도나 혹은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에게 지도를 할 적에 요컨대 병만 나

그러니 모두 그 뜻만 대략 알면 그냥 믿고 가도 된다 이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바보제자가 가르쳐도 가르쳐도 모르니까 빗자루를 하나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빗자루로 항상 쓸고 털고 그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 없이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은 다 놓아야 된다. 아는 것을 다 놓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 때문에 길고 짧고 이른이 많아서 오히려 갈 길을 더디게 만든다 이런 소입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거죠. 공했으니 너는 함이 없이 하는 거다. 영화나 TV를 보면 배우들이 온갖 배역을 다 맡아서 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까? 환상이죠? 앉아서 보니까 그게 모두 환상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사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거는 내 환상이 저렇게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그걸 보고 있다. 그렇게 환상이 온통 다 하고 살 듯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다면 울고 불고 그냥 야단나죠. 그러나 진짜 안다면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이런 것이 다 무심하게 돌아가죠. 알게 되면 이 얼음관을 짊어오도 아주 편안하게 걸 어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관해서 놓으면 어떠한 영계성이나 환상도 이 한 모습에 한 모습이 딱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구요. 그렇게 수 천 개가 들어가도 그거는 들어가고 나간 사이가 없다는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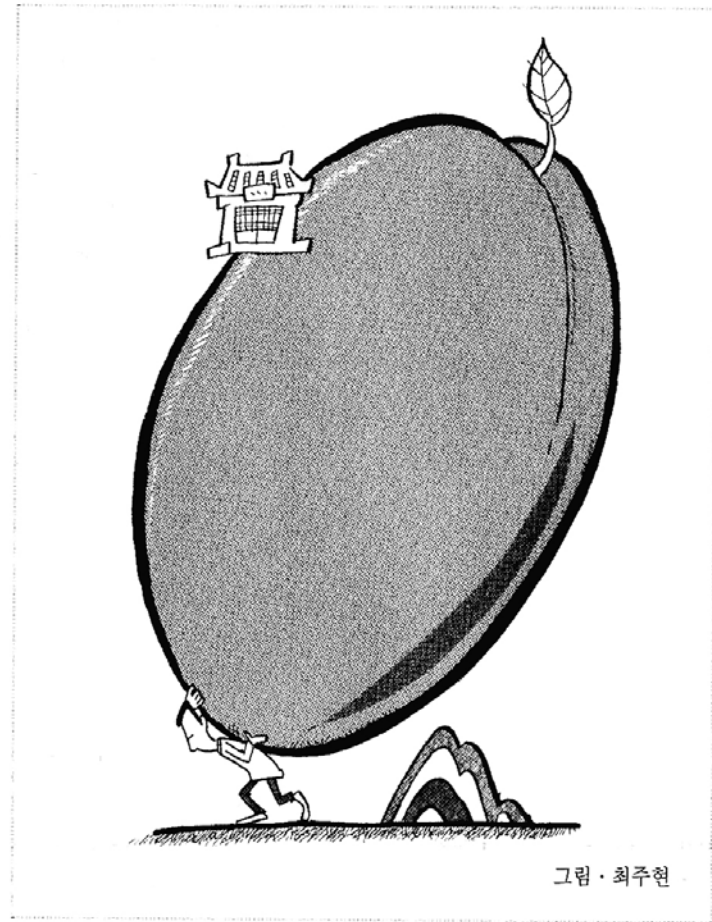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自佛이 자기 돌보는 걸 모르면 고통 아는것 못놓으면 이론 많아 갈길 더더

### 정신병자는 인과 무거운지요

스님,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스님 말씀요. 정신병이라든지 암 환자 들은 보통사람보다 조금 더. 말하자면 정도가 심한 그런 인과를 더 많이 지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살아온 대로니까요. 그 사람 자체가 살아온 대로니까요. 그래서 관하라. 돌 아나게 관하라. 돌 아나게 관하라는 보시를 가져다 하는 거죠. 항상.

### 병치료보다 참회가 우선인지

제가 두 번째 여쭙고자 하는 걸 스님께서 바로 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병들이 과거 생애 인과 때문에 온 것이라든가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 업식 보따리 속에 다 담겨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같은 경우는 사춘기, 10대 후반, 20대 초에 생기니까 그것은 인과 보따리 속에서 좀 빨리 드러나는 셈이고, 암 환자는 주로 장년 이후 노년기에 생기는 거니까 몇 십 년 동안 노년기에 생기는 인과 불후에 공격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공부를 해서 속명통이 터지기 전에는 자기 속에, 보따리 속에 어떤 인과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인과를 업 보따리, 인과 보따리를 빨리빨리 녹여야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심성의화적이고 예방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스님께 여쭙어 보려고 했는데 스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여쭙겠습니다.

세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선원에 병이 아니라 대개 불병을 찾는 사람 가운데 극히 상근기 몇 분을 빼놓고는 육신의 괴로움이라든지 혹은 가난이라든지 혹은 다른 뭐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불병을 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을 적에 우리 선원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아주 그 병만 나오려고 그 병만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님의 일련의 가르침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질병이 생겼던 다른 어떤 괴로

움과 관하지 말고 참회도 좀더 특별함 쪽 많이 하고 새로운 마음의 지평을 열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님 가르침 주시 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저 나무를 뿌리하고 씩 얘기할 하죠. 나무에 싹과 뿌리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뿌리는 본래 그냥 그렇게 달려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네 뿌리는 바로 네 주인공이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체 우주 전체를 한데 쌓아서 이 공 한 알갱이로도 할 수 있고 한 사람으로도 할 수 있고 한 주먹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없이도 할 수 있던 얘깁니다. 그 모두를 하나로 했을 때 그 공 하나를 짊어지니까 세상에 잡어질 수도 없이 무겁더라. 그러면 그거를 어떡하면 빨리 해소시킬 수 있냐. 그래서 그냥 무조건 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것만큼 없어질 거고 믿지 못하고 믿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단지 자기 정신에 의해서 조금 나를 뿐이지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세세생 생을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걸 벗어 버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짊어진 공 한 알갱이를 수미산 같은 산이라고 한다면 산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면 무거운데 그냥 다 놓아라 합니다. 이 소리를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 나 되었습니까. 주인공이라는 자기 자를을 진짜 믿어야만 하는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리저리 우리가 그렇게 형성 시켜서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든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종자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자기 종자라는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겼다면 그 근본에다가 다 놓아야죠. 진짜로 믿고 놓아야죠.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 일 거수일투족이 다 그놈 때문에 움직여가게 되는 거니까요.

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병은 그대로 놔둬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일 리가 없기 때문이죠.

### 난치병 낮게 하려면...

스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처음 질문 올린 대로 그런 정신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난치 불치병 환자들은 과거 생으로부터 좀더 여는 사람과 다른, 각별한 인연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병이 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큰스님 같은 대 선지식을 만나서 그 괴리를 풀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 병을 녹이지 않으면 어쩌면 이 생에서 그 병으로 한 생을 마감하고도 다음 생에도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가 그렇죠. 그런데 길에 가다가 가택 같은 사람만 만나도 괴리가 풀어질 거예요. 아, 하하하.

### 돌 아나게 놓는법 잘 안돼요

스님! 스님 회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돌 아난 도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너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참 편한데요 '돌이 아니잖아' 인했을 때에는 뭔가 걸립니다. 그렇게 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렇게 나름대로 관해는 결과 '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력을 스님, 좀 살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는 것은 진짜로 믿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딱 같은 경우는 '돌이 아니잖아' 할 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 아니잖아' 이 소리가 나오죠.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유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든지 다 대대로 유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 백년을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수 천년을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전이라는 것도 잠시 잠깐에 그 유전을 대체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이렇게도 과거입니다. 어찌가 과거이고 아까 한 시간 전도 과거니까 과거다 미래다 또는 현실이다 할 게 없이 그대로 공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되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물 한 모금을 마셨어도 내가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목이 말라서 달래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죠.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것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근본에서만이 모든 걸 해나가죠.

처음에는 부처님을 보고도 '저 형상이지' 이렇게 따지지만 '일체제물의 마음' 이라고 그 만들어 놓은 찬불가를 가만히 들어보신다면 아실 거예요. 내가 몸이 몸방 공해서 비었다면 저 부처님과 같아. 부처님과 같다면 모든 걸 갖추고 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못 볼 게 없고 할 게 없고 못 건질 게 없다.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라. 내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면 또는 말을 잘못한다면 이런 원인도 이 보는 눈이, 눈 하나가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말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소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에 그냥 공체로 봐라, 공심으로 봐라. 아무리 강도라 하더라도 이쪽에서 강도가 아닌 사람이 강도를 볼 때는 강도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강도면 강도도 됩니다. 급하게 뛰어가는 걸 봐도 강도로 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곱고 텅 빈 사람은 그대로 악이든지 선이든지 그걸 가리지 않고 불쾌하게 하질 않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잘하기만 하겠습니 까만 잘하는 못하든 무조건 거기에 놓고 관해라. 거기다 놓아 버려라. 그래서

네가 공해서 없다면 모든 게 없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함이 없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니 내가 배를 탄 것도 아니고 배를 안 탄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 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것도 없고, 이게 모두가 끊어진 상태죠. 예를 들어서 배워서 끊어진 사람은 한가하기가 짝이 없어서 망상도 버리지 않고 선한 것도 구하지 않고 악도 버리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도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다 아니까,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 안게 되죠. 하마못해 날아다니는 새 하나 벌레 하나라도 다 돌 아나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떤 때 급하면 새들도 와서 일러주고 이런 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 달마대사의 돌 아난 뜻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뜻을 받들어 서 크게 불사를 일으킨 왕을 보고 전륜성왕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마조사께서는 똑같은 행을 한 왕을 보고 공덕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결국은 스님 자신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달마조사님의 돌 아난 뜻은 무엇입니까.

달마스님은 그렇게 그걸 똑바로 가르쳐 줬는데도 양무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달마스님은 죽였는데도 "나는 이렇게 죽지 않았다. 나는 산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도 없었다. 너희들 똑바로 바라" 하구신 신 한 짝을 그 주장 자체가 다 걸고서 보여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남까지 그 말씀이 그냥 내려오고 있으니 그 왕도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 양무제가 스님을 죽인 죄업은

그러면 그 왕은 그 스님을 죽인 죄에 대한 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거를 놔두고 볼 아니게 봤다면 없을 것이고 틀로 봤다면 그거는 인과성으로서 또 흘러내려가겠죠.

### 지장보살의 소원과 보람

지장보살님은 지금도 지옥 문고리에서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상계를 보면 전혀 보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소망일 겁니다. 지장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이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보살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깁니다. 그걸 항상 틀로 보시지 말고 따로 따로 보시지 마세요.

### 큰스님 마음 느끼고 싶어요

예, 스님께서는 이미 다 구족하시고 부족하신 게 없으시고 더 이루실 것도 없으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이렇게 시끄럽고 험악한 이 자리에 그냥 나무어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 그 마음을 저는 느껴 보고 싶어요. 많이 썼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스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만은 오로중입니다. 도저히 스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스님을 보고도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불보살의 마음을 어떻게 알려고 하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님! 제발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제가 스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역력하게 살아 계신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삶이란 내 마음을 아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저 없든지 가난하든지 있든지 항상 진자로 믿고 '너만이 나를 내내, 세세생 생애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야' 하고 관하면서 자신의 마음부터 알려고 하세요. 이끌어 온 것도 온 거지만은, 자기 마음을 안다면 모두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자기 마음만 알면 모두를 알게 될텐데 누구 누구를 그 하나리는 걸 모르기 때문에 누구누구 다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에만 해도 그렇게 모두 전부가 된다는 얘깁니다. 하나의 마음으로도 다 통달해서 하나만 해서 모든 걸 집어넣는다면 저 땅 속에서 사는 벌레도 알고 어떤 인사를 할 거예요. '나는 이제 알아. 나는 이제 벌레의 모습을 벗어날 거야' 하고 말이에요.

알든 모르든 진짜로 자기 근본, 자기 몸통이를 이끌어가는 자기 근본을 진짜로 믿고, 어디를 가든 들어오든 어떤 일을 해도 모든 것을 거기 맡겨놓고 해보세.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공부하세요. 진짜 공부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런 게 아니고 옳은 것도 거기 놓고 그른 것도 거기 놓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게 둘이 아니다. 모든 게 우리가 살아도 함이 없이 사는 거니까 그대로 놓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 삼아 이렇게 얘기 하다가 보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공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사시다 보면은 첫째, 이 공기주머니 안을 벗어날 거고 공기주머니 안을 벗어난 자유스럽게 자기하고 싶은 대로 에너지 발생을 해서 진화가 돼서 살든지 여기 저기 뭐 살고 싶은데 가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구처럼 우리가 살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지 못해서 그렇죠.

우주도 많고 또는 혹성도 좀 많습니까. 별성도 많고. 그런 데서부터 종자가 생겨서 인간으로 된 거니까요. 이 공기주머니도 그렇게 해서 내려준 거구요. 우리 생명이 생기니까 그렇게 공기주머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있을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나중에 같이 또 만납시다.

\*위 법문은 1999년 9월 5일 법체제회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